

#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 the  
Middle-Aged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 김순미\*\*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고선강\*\*\*

Dept. of Con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Kim, Soon-Mi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Koh, Sun-Kang

##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generational financial resource transfer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mong the middle-aged. The study sample consists of 1536 middle-aged individuals with at least one living parent and one married child.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dependent upon the level of household economic statu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nclude age, education, subjective health status,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assets. Moreover, intergenerational resource transfer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explai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effect of financial transfers from middle-aged parents to their adult children on the level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the most significant financial transfer variable.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09-32A-C00010).

\*\* 주저자 : 김순미(kimsm@cnu.ac.kr)

\*\*\* 교신저자 : 고선강(skoh@sungshin.ac.kr)

Key Words : 노후생활 준비(preparation for later life), 경제적 자원이전(financial resource transfers), 세대관계(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사적이전(private transfer), 중년기(middle-aged)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의 진전은 노후생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있다. 노인 인구의 생계와 의료비 등 복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 재취업 등과 관련한 노동시장의 문제 등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주요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로 인한 비정규직의 확산, 직업 및 은퇴 연령의 불안정성 증가 등은 일반인들에게 은퇴와 노후 삶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평균 수명의 연장과 직장생활 기간의 축소는 은퇴 이후의 경제적 안정과 독립적 생활 유지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의 이중 부담 속에서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의 약화로 인하여 효에 기초한 부모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은 대부분 중년기 자녀에게 있다. 이와 더불어 중년기 가정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최근 초혼 연령의 상승은 자녀가 성장하여 부모를 떠나는 시기를 지연시키고, 이는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기간을 확장시켜 중년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년기 부모의 자녀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에는 사교육비, 대학교 재학기간에는 대학등록금,

취업준비와 결혼을 위한 비용까지 자녀가 독립하여 가정을 떠날 때까지 지속된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책임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를 둔 50대 성인에게 자녀 양육 책임의 한계를 조사한 결과, 약 41%가 대학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책임을 갖는다는 동의하였고, 결혼할 때까지 부양책임을 갖는다는 응답도 33%였다(김승권 외, 2009). 이런 상황은 중년기 부모가 스스로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부모세대, 자녀세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중년기 세대는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려진다. 현재의 노년층은 전통적 가치관을 기초로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 없이 자녀에게 대부분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고 중년의 자녀로부터 노후생활에 대한 부양을 받고 있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된 20-30대 자녀세대는 부모부양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 현재 중년기 세대는 자녀로부터의 부양받기가 어렵거나 최소한의 부양만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더욱이 노인 부양에 대한 제도나 시설 역시 아직 미비하여 사회나 국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부양 수준도 낮은 세대에 속한다. 이렇듯 중년기 세대는 변화된 욕구 구조에 부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원하지만, 현실적 준비는 매우 미약한 세대이다. 즉 중년기 가정은 부모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통한 비용부담과 자녀로부터의 혜택이라는 양면성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 갈등을 느끼는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년기 가정은 노후생활 준비가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결정적 시기에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고령 조사대상자의 약 68%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2009).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부양과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노후생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년기 가정의 중간세대로서의 역할 부담은 다른 세대로의 자원이전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 중년기 가정의 노후생활 준비에 현재의 노부모를 위한 자원이전과 자녀에게 제공하는 자원이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간세대로서의 중년기 가정의 노후생활 준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즉 중간세대로서의 중년층의 행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년층의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며, 경제적 자원의 교류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기 가정의 3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개인적 특성과 가족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 가정이 현재 경험하는 중간세대로서의 갈등적 생활 문제에 대처하고, 미래의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의 노후생활 준비와 경제적 자원이전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40세에서 60세 사이를 중년기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중년기 기간을 확장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적어도 앞뒤로 10년 정도를 더하여 30세에서 75세 사이를 중년기로 보기도 한다(Lachman, 2001). 생물학적 평균수명의 증가는 중

년 기간의 확장뿐 아니라 새로운 가족구조 안에서 중년기 구성원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3세대, 4세대가 한 세상에서 공존하는 가족구조의 수직화(vertical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Bengtson, Rosenthal, & Burton, 1990). 이러한 현상은 연장된 중년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수직화된 가족관계에서 중간세대로서의 역할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과거 생애발달적 측면의 중년기는 가족의 관점에서는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여유로운 시기이고, 노환이 있는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생기는 시기였다(Lachman, 2001). 따라서 중년기 성인은 노부모에 대한 돌봄 책임은 있으나 자녀부양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여유로운 소득을 바탕으로 자신의 노년기의 삶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는 과업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는 시기가 지연되어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역할 수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Putney & Bengtson, 2001; 여성연·고선강·조희금, 2010). 이는 중년기 가정이 노부모 돌봄과 자녀부양의 이중책임을 지는 기간 또한 길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년기의 사람들은 가정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부모와 자녀로서 역할 수행에 할애할 것인지, 자신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할애할 것인지를 갈등 상황을 경험할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중년기의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샌드위치 세대’라고 한다. 서구의 샌드위치 세대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노부모 돌봄, 자녀 돌봄과 자신을 위한 시간 사용 간의 갈등, 경쟁에 관한 관점에 근거한다(Brody, 1981; Putney & Bengtson, 2001). 서구사회의 경우 사회보험의 발달과 개인주의적 문화로 노부모의 경제적 부양은 1차적으로 노부모 자신에게 있고, 2차적으로 국가가 그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자녀는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사회는 중년기의 자녀가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상당부분 지고 있기 때문에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이중부담에 있어서 경제적 영역의 비중이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부모들이 더 긴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중년기 성인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들이 경제적 영역에 집중되어 온 것도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물론 부모와 자녀세대 사이의 경제적 지원의 이중부담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세대 간의 관계는 개별 가정의 자원을 서로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자원을 이전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자원이 한 가정에서 다른 가정으로 보내지거나, 투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자원 이전 행위는 자원을 보내고, 받는 쌍방간의 관계 맺기로 볼 수 있다(고선강, 2011). 따라서 중간세대로서의 중년층의 이중부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년층을 중심으로 한 3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세대 간 자원이전에 관한 최근 연구들(고선강, 2008; 김순미·박미려, 2008; 김지경·송은경, 2004; 김지경·송현주, 2008; 문숙재·김지연, 2006; 이윤정·고선강, 2011; 황남희·정주연, 2009)은 50대 이상의 중노년층의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한 연구, 세부적으로 노부모 부양의 측면에서 2세대 간 자원이전 연구, 또는 성인 자녀들과 주고 받는 2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주된 관심이었다. 3세대 간의 자원이전 연구의 중요성은 평균수명의 연장, 자녀의 독립시기 지연 등으로 가정의 한정된 자원으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중년층이 늘어나는 데에 있다(Grundy & Henretta, 200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3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함께 연구한 논문(고선강, 2011)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중년기 가정이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가지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중 누구에게 더 이전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은 설명해 줄 수 있으나, 부모세대, 자녀세대 그리고 중년층 자신의 3자 간에 누구에게 자원을 더 분배할 것인가의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년기, 노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윤정·최윤희, 2004; 양순미·홍숙자, 2002; 강유진, 2005)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노후준비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지만 실제 노후준비의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후생활 준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기도 하며, 신체적 영역, 경제적 영역, 건강, 정서적 영역, 사회적 영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영역을 연구한 논문들도 있다(김양아·이채우, 2008; 강유진, 2005; 김백수·이정화, 2010; 이정화, 2009). 대다수의 연구들이 개인적 특성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나, 최근 가족 관련 특성을 관련변인으로 연구한 논문들(강유진, 2005; 이선형·최은희, 2010)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중간세대로서의 이중부담이나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다.

## 2. 노후생활 준비 관련 변인 고찰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들과 노후생활 준비를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연구한 논문들에 나타난 관련 변인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의 개인적 특성은 노후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 성별에 따라 노후생활 준비정도가 다르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은 35세-60세 사이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소득, 노인인식 연령 등이 전반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더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해서는 홍성희·곽인숙(2006)의 40대 이상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노후에 대한 경제적 준비 수준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창제(2008)와 이선형·최은희(2010)의 연구도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하여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경향성이 높다고 하였다. 반면 김양이·이채우(2008)의 40-60세 사이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 정서적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연령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는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 준비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강유진(2005)은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홍성희·곽인숙(2006)도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은 연령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자가 노후생활 준비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으며(강유진, 2005),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 경제적 준비를 할 경향성이 높았고(이선형·최은희, 2010),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경우 고졸 이하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전반적인 노후준비를 잘한다고 하였다(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10).

건강상태도 노후생활 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백수·이정화(2010)의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인지한 건강상태는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형·최은희(2010)는 다른 관련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상태가 ‘불편한 상태’라고 답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건강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노후 준비가

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가정의 소득, 자산 등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요인들도 노후생활 준비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노후생활 준비는 정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으나, 노후준비 영역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강유진(2005)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한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경제적 노후생활 준비에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나, 사회적 노후생활 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다. 김양이·이채우(2008)의 연구에서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전반적 노후준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제(2008)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선형·최은희(2010)는 저소득층과 비교하여 중간소득층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곽인숙(2006)은 노후 경제적 준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내기 위하여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변수들을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주택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높다고 평가할수록 노후 경제적 준비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주관적으로 인식한 경제적 능력을 높다고 평가할수록 노후 건강준비 수준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10)의 연구에서는 35세-60세 사이의 근로자들의 월소득은 전반적인 노후준비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족과 세대관련 변인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강유진, 2005; 이선형·최은희, 2010).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들어

세대 간 자원이전 행동과 유사한 맥락으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와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강유진(2005)은 30-50대의 기혼남녀의 노후준비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과 부모역할 수행의 영향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은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부양영역에서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가를 측정하였고, 부모역할 수행은 부모로서 자식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자신이 수행하는 부모역할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끼는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건강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 노부모에 대한 부양제공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니었고, 부모역할수행은 유의미한 변인이었다. 자녀에 대해 부모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이선형·최은희(2010)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에 대한 기대정도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에 대한 결혼상태, 자녀와 동거여부, 부모부양책임에 대한 인식, 자녀 생활비 지원에 대한 기대 등의 가족 관련 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이들 중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할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분석할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를 선정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택하였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의 경제적 자원이전을 나타내는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추가로 가족 관련 변인으로 세대 간 자원이전과 관련 있는 자녀 수를 관련변인에 포함시켰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년기 가정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갖는다.

- 중년기 가정의 노후생활 준비 및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은 어떠한가?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있는가?
- 중년기 가정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의 효과는 어떠한가? 경제적 자원이전의 효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가?

#### 2. 연구대상 및 표본

본 연구의 대상은 중년의 성인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적어도 1인이 생존해 있음
  - 자녀 중 적어도 1인은 결혼(이혼, 사별 등)한 상태이며 조사대상자 부부와 따로 살고 있음
- 조사대상자를 위와 같이 정한 이유는 3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준비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함이다. 적어도 3세대가 존재해야 노부모-중년부부-자녀 간의 자원이전을 관찰 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 또한 경제적 자원이전은 독립된 생활단위를 유지할 때 보다 선명하게 이전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통한 자녀의 독립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분가의 조건을 두었다.

편의표집에 의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지만,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거주 가구수에 비례하여 서울특별시와 5대광역시(부산, 광주, 대구,

울산, 인천)의 각 지역의 목표조사대상자 수를 설정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지역별 설문조사 관리자를 중심으로 조사원들을 파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50분의 설문지 작성 교육을 받았고,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자가 원할 경우 조사원이 설문지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 중 소득, 자산 등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팀의 주소와 우표가 붙어있는 봉투에 넣어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조사원이 직접 수거해 오는 경우에도 응답자가 작성된 설문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수거해 오도록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연구보조원들이 검토하여 몇몇 문항이 부실기재된 경우는 전화로 추가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의 적합성과 답례품 전달 확인을 위하여 무작위로 설문지를 뽑아서 전화 확인을 하였다.

총 2067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1679부가 회수되었으며 부실기재한 50부를 제외하였다. 회수율을 81.2%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담당 연구보조원들이 검토한 후에 데이터 파일로 입력하고 확인하였고, 총 1629부의 설문지가 확보되었다. 본 연구는 50-60대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표본은 1536명이다.

### 3.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표본의 일반적 특성

####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노후생활준비이다. 노후생활준비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상태를 주관적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은 경제적 자원이전 관련 변수들이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의 유무,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의 유무,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의 유무,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의 유무 4가지로 측정하였다. 경제적 자원이전은 최근 5년간 응답자 부모와 부모(또는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간에 생활비, 사업자금, 교육비, 양육비, 주택관련 비용, 부채상환, 의료비, 내구재 구입, 경조사, 단순 증여 등의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제공) 한 적이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통제변수로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녀수, 가계소득, 가계자산이 사용되었다. 이 중 연령은 만 나이를 사용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와 대학이상으로 구분하였다. 건강상태는 응답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녀수는 응답자와 배우자 슬하의 자녀수를 측정하였다. 가계소득은 최근 1년간 가구원들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고, 가계자산은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 실물자산을 합하여 측정하였다.

#### 2) 연구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표본은 배우자가 있고,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중 한 분 이상 생존해 있으며, 자녀 중 한 명 이상 결혼해서 분가한 50-60대 성인 1536명이다. 연구표본에 포함된 사람들은 본인의 노후생활 준비정도를 평균 2.6점으로 답하였다.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정도를 보통(3점)과 약간 부족(2점)의 사이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표본과 윗세대와 아랫세대 간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연구표본의 66.9%가 최근 5년 이내에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고, 61.2%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연구표본이 부모와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비율은 각각 부모로부터는 17.2%, 자녀로부터는 41.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차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을 분석한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 밝힌

경제적 자원이전의 비율과 차이를 보인다. 고선강(2011)의 연구에서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제공 28.5%,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제공 55.8%,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은 비율이 3.1%,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은 비율은 56.5%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연구표본의 연령대가 40대-60대로 본 연구표본의 연령대 보다 넓은 반면, 경제적 자원이전의 발생 기간은 지난 1년으로 한정시킨 것이 비율의 차이를 일부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표본의 23.3%가 남성이고, 74.7%는 여성이다. 연령은 평균 57.46세이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의 33%를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의 수준이 보통과 건강한 편에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수는 2.28명이었다. 응답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는 항목으로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조사하였는데, 가계소득은 월평균 476만원, 중위소득은 400만원

〈표 1〉 변수의 정의와 표본의 일반적 특성

(n=1536)

구분	변수	정의 및 측정 방법	빈도 (평균)	비율 (표준편차)	
종속 변수	노후생활준비	1=매우 부족, 2=약간 부족, 3=보통, 4=약간 충분, 5=매우 충분	2.60	1.05	
독립 변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0=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 1=경제적 도움을 제공	509 1027	33.1% 66.9%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0=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 1=경제적 도움을 제공	596 940	38.8% 61.2%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0=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음 1=경제적 도움을 받음	1272 264	82.8% 17.2%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0=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음 1=경제적 도움을 받음	902 634	58.7% 41.3%	
통제 변수	성	0=남성 1=여성	385 1148	23.3% 74.7%	
	연령	만 연령	57.46	4.38	
	교육수준	0=고등학교 이하 1=대학교 이상	500 1014	67% 33%	
	건강상태	1=매우 나쁨, 2=나쁜 편, 3=보통, 4=건강한 편, 5=매우 건강	3.50	0.69	
	자녀수		2.28	0.78	
	가계소득	최근 1년 간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476.16	399.66
		하위 25%			270
		중위수			400
	가계자산	상위 25%			600
		부동산자산+금융자산+기타실물자산(만원)		57243.37	77055.45
하위 25%				17000	
중위수				32000	
	상위 25%			65000	



이었다. 가계자산은 평균 5억7천240만원 표준편차 7억7천만원이었고, 중위수는 3억2천만원으로 나타나 가계자산이 매우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분석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와 경제적 자원이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사후검정 Scheffe test),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들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에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중년기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와 경제적 자원이전

중년기 성인이 스스로 평가한 노후생활 준비정도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으로 측정하고, 각각을 4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별

노후생활준비의 평균값을 <표 2>에 제시하였다.

가계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1분위의 노후생활 준비 점수는 평균 2.1점, 2분위는 2.49점, 3분위는 2.79점, 4분위는 3.15점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가계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는 노후생활 준비정도의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가계자산 수준에 따른 노후생활 준비정도의 차이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가계자산 1분위(2.03점)와 4분위(3.25점)의 점수 차이가 가계소득에 따른 점수 차이보다 더 컸다.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노후생활준비는 설문응답자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를 측정하는 반면,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은 가정을 하나의 단위로 측정하였다. 가정의 자원관리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 자원은 개인보다는 가정을 단위로 관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가계소득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 자녀에게 제공, 자녀로부터 받음은 가계의 소득수준 별로 그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은 가계소득 1분위가 58.2%, 2분위가 63.8%, 3분위와 4분위가 각각 74.4%로 나타났고, 자녀에게 경

<표 2> 중년기 성인의 노후생활 준비정도

가계소득에 따른 노후생활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F
	평균	2.10	2.49	2.79	3.15	2.61	74.683***
n	363	466	260	357	1446		
		a	b	c	d	Scheffe	
가계자산에 따른 노후생활준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F
	평균	2.03	2.48	2.73	3.25	2.62	96.008***
n	338	349	343	336	1366		
		a	b	c	d	Scheffe	

\*\*\*p< .01

〈표 3〉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이전			가계소득					$\chi^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안함	n	155	171	67	91	484	31.92***
		%	41.8	36.2	25.3	25.3	32.9	
	제공 함	n	216	302	198	269	985	
		%	58.2	63.8	74.7	74.7	67.1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안함	n	187	174	90	106	557	37.6***
		%	50.4	36.8	34.0	29.4	37.9	
	제공 함	n	184	299	175	254	912	
		%	49.6	63.2	66.0	70.6	62.1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받지 않음	n	311	402	213	291	1217	3.94
		%	83.8	85.0	80.4	80.8	82.8	
	제공받음	n	60	71	52	69	252	
		%	16.2	15.0	19.6	19.2	17.2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받지 않음	n	192	278	144	244	858	21.61***
		%	51.8	58.8	54.3	67.8	58.4	
	제공받음	n	179	195	121	116	611	
		%	48.2	41.2	45.7	32.2	41.6	
경제적 자원이전			가계자산					$\chi^2$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전체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안함	n	145	110	103	85	443	24.25***
		%	41.8	31.3	29.7	24.9	31.9	
	제공 함	n	202	241	244	257	944	
		%	58.2	68.7	70.3	75.1	68.1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안함	n	164	137	124	97	522	27.05***
		%	47.3	39.0	35.7	28.4	37.6	
	제공 함	n	183	214	223	245	865	
		%	52.7	61.0	64.3	71.6	62.4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받지 않음	n	282	298	286	286	1152	1.81
		%	81.3	84.9	82.4	83.6	83.1	
	제공받음	n	65	53	61	56	235	
		%	18.7	15.1	17.6	16.4	16.9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	제공받지 않음	n	185	193	199	218	795	8.83**
		%	53.3	55.0	57.3	63.7	57.3	
	제공받음	n	162	158	148	124	592	
		%	46.7	45.0	42.7	36.3	42.7	

\*\*p< .05 \*\*\*p< .01

제적 자원을 제공한 비율은 1분위 49.6%, 2분위 63.2%, 3분위 66.0%, 4분위 70.6%였다. 중년기 가정이 부모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 가계소득이 낮은 집단의 제공 비율이 높은 집단의 제공 비율 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

는 것을 살펴보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 받은 비율은 가계소득 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자녀로부터 제공받은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가계 소득 분위에 따라 점차적으로 비율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가계소득 1분위의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비율이 48.2%, 2분위는 41.2%, 3분위는 45.7%, 4분위는 32.2% 였다. 1분위의 48.2%와 4분위의 32.2%는 약 16%의 감소된 것으로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으나, 3분위의 경우 오히려 2분위 보다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은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계자산 수준에 따른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 비율도 중년기 가정이 제공자가 되었을 때 가계자산의 수준이 1분위에서 4분위로 갈수록 경제적 자원의 제공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중년기 가정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의 가계자산 수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은 1분위 46.7%, 2분위 45%, 3분위 42.7%, 4분위 36.3%로 가계자산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은 비율이 높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중년기 가정이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자가 되었을 때는 가계소득, 가계자산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적 자원의 제공 비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수혜자가 되었을 때는 부모로부터의 수혜 비율은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거나,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단지 자산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이전받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활용해서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을 분석한 황남희·정주연(2009)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소득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서 각 분위별 사적이전 소득과 사적이전 지출의 비율과 평균금액을 산출하였는데, 사적이전 지출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전빈도와 액수가 증가하였으나 이전소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이전 비율과 액수가 증가하지 않았다. 소득 2분위의

이전소득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자원이전 연구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공자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지만,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수혜자인 중년기 가정보다 제공자인 부모 또는 자녀의 경제적 수준이 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중년기의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효과

중년기 가정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 준비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후생활준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경제적 자원이전을 독립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노후생활준비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통제한 후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노후생활준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는지 공차와 VIF값으로 확인하였고, 다중공선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의 편포되어 있어 자연로그를 취하여 교정하였다. <표 4>는 노후생활준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4>에 제시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노후생활준비를 약 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변수들의 노후생활준비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제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계소득, 가계자산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준비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인 사람들이 고등학교 이하인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생활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또한 노후생활준비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나

(표 4) 노후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n=1280)

통제·독립 변수 (준거집단)		노후생활준비		
		B	S.E.	$\beta$
통제 변수	성	.067	.065	.028
	연령	.033	.007	.135***
	교육수준(고졸이하)	.130	.061	.058**
	건강상태	.144	.038	.095***
	자녀수	.020	.036	.014
	가계소득(ln)	.278	.043	.187***
	가계자산(ln)	.192	.021	.259***
독립 변수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097	.058	.043*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255	.056	.117***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122	.071	-.043*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110	.056	-.051**
상수		-3.752	.523	
F		34.34***		
R <sup>2</sup>		.230		

\*p< .1 \*\*p< .05 \*\*\*p< .015

타내주는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이 높을수록 중년기 성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노후생활준비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소득보다 가계자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모형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높았다.

독립변수인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와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모두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노후생활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경우는 받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생활준비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을 통제한 상태에서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자원이전이 노후생활준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년기 가정의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의 수준이 동일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사람이 제공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

하여 스스로 지각하는 노후생활준비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동일한 경우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노후생활준비 정도가 더 낮다는 것이다. 4개의 경제적 자원이전 변수의  $\beta$  값들을 비교해보면,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가 노후생활준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 보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관적 노후생활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중년기 가정의 경우 부모나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때 스스로 노후생활준비가 더 잘 되어있다고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와 <표 4>에서 제시한 것처럼 노후생활준비가 가계자산 수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 자원이전의 양상도 가계의 자산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계자산 수준이 유사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준비에는 어떤 변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계자산 수준을 4분위로 나누고 각 분위의 노후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가계자산 1분위는 0원이상~1억7천만원 이하, 2분위는 1억7천만원 초과~3억2천만원 이하, 3분위는 3억2천만원 초과~6억5천만원 이하, 4분위는 6억5천만원 초과로 나뉘었다.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4개의 회귀모형 중 가계자산 4분위 모형의 설명력이 약 21.2%로 가장 높았고, 3분위 그룹 모형의 설명력이 6%로 가장 낮았다.

가계자산 1분위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변수들은 가계소득,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이었다. 즉 가계자산 1분위의 사람들은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준비도를 높게 평가하며,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주관적으로 인지한 노후생활준비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또는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계자산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인들보다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 또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의해 자신들의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한 인식이 영향 받음을 알 수 있다.

가계자산 2분위 집단의 경우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이 노후생활준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가계자산 1분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이 이들의 노후생활준비 정도를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노후생활준비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 자원이전

의 경우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생활준비 정도를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계자산 2분위의 사람들은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 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이전이 자신의 노후생활준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가계자산 3분위 모형에서는 연령, 건강상태, 가계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3분위의 사람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준비 정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자원이전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가계자산 4분위 모형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었다. 성,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계소득,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생활준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을 한 경우에 중년기 성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노후생활준비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5〉 중년기 가정의 자산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준비

통제·독립 변수 (준거집단)		노후생활준비											
		가계자산 1분위 (n=315)			가계자산 2분위 (n=327)			가계자산 3분위 (n=325)			가계자산 4분위 (n=313)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통제 변수	성	.110	.135	.048	.299	.124	.147**	-.061	.134	-.027	-.259	.131	-.111**
	연령	.018	.012	.088	.039	.012	.183***	.028	.014	.118*	.051	.014	.222***
	교육수준(고졸이하)	.039	.146	.016	.489	.127	.231***	.024	.127	.011	-.258	.103	-.136**
	건강상태	.061	.076	.045	.213	.074	.156***	.176	.079	.125**	.159	.071	.116**
	자녀수	.023	.067	.019	-.040	.065	-.033	.131	.080	.092	-.034	.073	-.026
독립 변수	가계소득(ln)	.276	.075	.206***	.048	.090	.029	.203	.109	.111*	.397	.072	.296***
	부모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268	.108	.139**	.111	.111	.054	.060	.123	.028	-.149	.117	-.068
	자녀에게 제공한 경제적 자원	.271	.107	.143**	.220	.107	.113**	.166	.116	.080	.445	.113	.214***
	부모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149	.142	-.059	.046	.143	.018	-.211	.144	-.081	-.216	.130	-.087*
	자녀로부터 받은 경제적 자원	-.065	.108	-.034	-.161	.106	-.084	.015	.119	.007	-.082	.107	-.042
상수	-1.221	1.010		-1.499	1.038		-1.024	1.279		-2.209	1.043		
F	3.62***			4.467***			2.090**			8.108***			
R <sup>2</sup>	.106			.124			.062			.212			

\*p<.1 \*\*p<.05 \*\*\*p<.01

## V. 결 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준비의 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부모(배우자 부모) 중 한분 이상 생존해 있고,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가 있는 50-60대 중년기 성인 1536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60대 중년기 성인이 스스로 인지하는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주관적 노후생활 준비에 대한 평가도 보통 정도의 수준이었다. 가계의 소득,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소득, 자산 수준이 낮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후생활 준비정도를 높게 평가했다. 중년층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가계소득, 가계자산)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인 노후생활 준비도 측정에는 가계소득, 가계자산 수준이 포함되지만, 주관적인 노후생활 평가에도 객관적 경제적 수준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자원이 확보되어야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었다고 느끼게 되므로 중년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의 노후생활 준비도의 평균점수가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객관적인 경제적 자원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이 노후생활 준비에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 있다. 다른 측면으로 노후생활 준비에 있어서 경제적 자원은 기초적인 부분이며 다른 영역에 대한 고려도 중요함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하며, 자신의 경제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 절감을 위한 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노후의 경제적 준비에 집중되어 있는 노후 생활준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여 다른 영역의 생활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제적 자원이전 행동은 차이가 있었으나, 제공주체와 수혜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년기 가정이 제공자가 되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 각각에게 제공하는 비율은 중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제공 빈도도 증가하였다. 반면 중년기 가정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수혜 비율의 차이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자녀로부터 받는 경우는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 연구에서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년기 가정이 수혜자가 되는 경우 부모 보다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제공받는 것이 수혜자의 경제적 수준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부모가 중년기 가정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중년기 가정의 소득이나 자산수준이 크게 고려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 즉 중년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부모로부터 자원이전을 받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성인자녀가 중년기 가정에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년기 부모의 경제적 수준 낮은 경우 자원 제공이 빈번함을 나타냈다. 즉 성인자녀가 중년기 가정에 제공하는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필요 또는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정이 성인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을 받는 경우 자녀들은 보다 이타적인

동기에 기초하여 중년기 가정에 경제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년기 가정의 부모, 자녀와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노후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고, 이들 중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제공의 효과가 가장 컸다.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지 않은 중년층과 비교하여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보다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가정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자신의 노후생활 준비 수준을 가늠하는 조건으로도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중년기 성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노후생활 준비정도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보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즉 중년층이 노부모에 대한 자녀로서의 역할보다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 노후생활 준비와 관련성이 깊음을 알 수 있었다. 50-60대의 중년층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에 개인적 경제적 성취를 경험한 세대인 반면, 이들의 자녀들은 경제불황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20-30대들이다. 중년층은 자신들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부족한 자녀들을 위해 자녀성장기에는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자녀의 결혼비용, 자녀의 주택마련과 손자녀 양육에까지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성장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어야만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산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경제적 자원이전과 노후생활준비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의 효과의 크기가 유사한

반면, 자산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제공의 효과가 컸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중년층의 경우 노부모와 자녀사이의 이중부담이 자신의 노년에 대한 준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노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노후생활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과 비교하여 노후를 위해 경제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더 큰 집단이지만, 현실적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년층이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중부담을 덜어 주는 관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세대 간의 자원이전을 통한 세대관계가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집단의 중년층들의 노후생활준비에 어떠한 세대관계가 작용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를 세대 간 경제적 자원이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노후생활 준비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는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세대 관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는 중년층만의 과제가 아니며 그들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부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부담이 모두 연결된 복합적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사회는 앞으로 급속한 노년층의 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현재의 중년층은 노후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를 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중년층 자체만 고려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들의 노부모 세대, 성인 자녀 세대를 함께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 2)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3)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4) 김백수·이정화(2010).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411-425.
- 5)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14.
- 6) 김승권·김유경·조애저·김혜련·임성은(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 7)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 8) 김윤정·최윤희(2004).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노후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4, 197-213.
- 9)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10) 김지경·송현주(2008).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와 부모 간의 사적소득이전. 사회보장연구, 24(3), 77-98.
- 11) 나지나·백승애·신은경·김미혜(2010). 결혼 해체를 경험한 베이비부머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 여부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0(2), 29-54.
- 12) 문숙재·김지연(2006). 소득계층에 따른 경제적 자원교류 결정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29-329.
- 13)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 14) 양순미·홍숙자(2002). 중년기 농촌여성의 노후준비와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41-149.
- 15) 어성연·고선강·조희금(2010). 전문직 미혼 남녀의 만혼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19.
- 16) 이윤정·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17)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 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 18)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 19)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20)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 21) 황남희·정주연(2009).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2009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1-22.
- 22) Bengston, V., Rosenthal, C., & burton, L., (1990). Families and aging: diversity and heterogeneity. In Binstock, R. H., & George, L. K.(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 social Sciences. 3rd edition, Academics: San Diego.
- 23) Brody, E. M. (1981). Women in the middle and family help to old people. *Gerontologist*, 21, 471-480.
- 24) Grundy. E. & Henretta. J. C.(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25) Lachman, E. (2001).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26) Putney, N., & Bengtson, V. (2001). Familie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and kinkeeping in midlife. 528-570. In *Handbook of Midlife Development*, Lachman, E.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 투 고 일 : 2012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4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5월 18일